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진주시 덕진구 인우동1기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진주시 덕진구 민성동로 55, 8층 805호(민성동, 오케이타워)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6년 2월 4일(수) 제 3260호

혁신당 “민주당, 의혹 덮기 ‘가짜뉴스’ 몰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3일 논평 민주 도당 강경입장 “정치 공세” “정춘생 발언 수사 절차 근거” “고창군 감사 이미 진행 확인”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3일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예대 기간의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 프레임 앞세운 강경한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이는 정치적 공격의 일환으로 정당한 의혹 제기를 부당하게 매도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정춘생 최고위원의 발언 핵심은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부정부패 의혹 사건이 전북경찰청으로 이첩되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었다”며 “그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당의 입장에서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허위사실’로 왜곡하며 우리 당을 저열한 가짜뉴스 유포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진실 규명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이며, 국민과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임”을 엄중 경고했다.

도당은 “해당 발언은 확인과 해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공당으로서 제기한

정당한 의혹 제기이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의혹 제기 자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것은 공적 검증과 정치의 기본 기능을 부정하는 행위”고 밝혔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해당 사건이 전북경찰청으로 이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후 발언했다. 그럼에도 이를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공식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된 사

실은 언론 보도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최근 고창군에 대한 감사가 이미 진행되었음도 확인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남원시 '모노레일 소송' 남원시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4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2면) <사진=남원시>

도, 여성·아동·가족 공익활동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3개 분야 8,100만원 규모 지원 1년 이상 실적·보조금 10% 자부담 수혜범위 2개 시군 이상 등 요건

전북도는 여성·아동·가족 분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여성·아동·가족분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아동의 권익증진 △가족관계 증진 및 결혼·출산장려 촉진과 다문화가족 지역 정착 지원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총 8,1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관련 분야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또 사업 수혜 범위는 2개 시군 이상이어야 한다. 전년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5년 연속

지원을 받은 단체, 단체 활동과 관련해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부서 사전검토와 유사·중복사업 조사를 거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3월 말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보조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업 수행 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숙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 현장에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정 이후에도 사업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박희승 “순창·담양 제5경마장 확정”

순창·담양 공동유치 사실상 확정 양군 경계 일대 경마공원 구상 “남원에 마사회본부 유치할 것”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전북의 순창과 전남의 담양이 정부가 추진한 제5경마장 설치 최종후보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전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국가 지원과 완주와 전주와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특별법 마련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무엇보다 완주전주 통합이 특별자치도 내 중추도시 형성 모델로서 3특 인센티브 지원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민생안정을 기본으로 미래 전략까지 아우르는 도정 전반을 흔들림 없이 추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북 대도약의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박희승 의원

마사회 산하 경마장은 서울(과천)과 부산(경남, 제주, 경북 영천시)에 있다. 순창·담양군은 지난 2024년도에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57만평과 순창군 팔덕면 창역리 61만평에 경마공원을 공동으로 유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담양군에는 승마와 말 산업 체험시설을, 순창군에는 경마와 관리시설을 각각 설치하고, 담양군과 순창군 사이의 산지에는 산악 승마 코스를 설치키로 했다.

순창·담양군은 경마공원이 유치된다면 일자리 창출 6천500개, 레저세 등 지방세 수입 1천억원, 마사회 지역 환원 사업 혜택 등 경제적 수익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제5 경마장과 함께 마사회 본부를 고속철도가 있는 남원에 유치해 장수 말 산업특구(마사고포함)와 함께 국내 말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영욱기자

전북자치도, 도정현안 점검...설 민생 안정 '총력'

간부회의서 물가·안전 대책 강화 명절 기간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도의회 협력 강화 새만금 대응 주문

전북도는 3일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을 비롯해 도의회 협력 강화, 중앙정부 소통체계 구축, 새만금 사업 대응,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도정 전반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성수품 가격 동향을 집중 관리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비상진료체계 및 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하는 등 도민이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고 이를 위해 명절 기간 민생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최근 마무리된 실국별 업무보고와 관련해 도의회의 건설적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드백과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는 사안은 실국장이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도록 당부했다. 또 자료 제출과 관련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제9기 새만금위원회 출범에 따른 대응과 관련,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재생

에너지 확충, 기반시설 조성, 메가 샌드박스 지정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새로 출범한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특히 투자유치 분야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AI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유치 성과와 직결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도정 현안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미래 인재와 신산업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인공지능(AI) 중심대학' 공모와 양자과학기술·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도 도내 대학 및 기업,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략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도의 피지컬 AI, 첨단제조, 방산, 에너지, 바이오 등 전북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과 기술 실증, 산업 확장 모델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

과 관련, “도는 이를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닌 전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존 전략으로 보고 광역 행정통합에 준하는 국가 지원과 완주와 전주와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특별법 마련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무엇보다 완주전주 통합이 특별자치도 내 중추도시 형성 모델로서 3특 인센티브 지원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민생안정을 기본으로 미래 전략까지 아우르는 도정 전반을 흔들림 없이 추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북 대도약의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JBT 전북타임스신문 Jeonbuk Times YOUR WINDOW TO THE WORLD, OUR FOCUS ON JEONBUK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구독신청 282-9600

전북도, 스마트농업 '쌍끌이 선정'...국비 200억 확보

진안·김제 스마트농업지구 동시 선정 10ha 이상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청년농 장기임대 창업 기반 마련 인허가 의제·공유재산 특례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공모에서 진안군(신규조성형)과 김제시(지구지정형)가 동시 선정돼 국비 200억 원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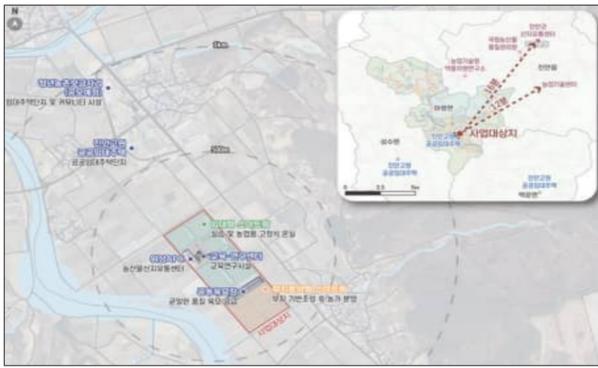
스마트농업육성지구는 10ha 이상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에게 5+5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한다. 아울러 APC, 가공시설, 수직농장, 관련 기업 유치 등 스마트팜 중심의 농업 전후방 산업을 집적하는 농업 혁신 거점 조성 사업이다.

신규조성형으로 선정된 진안군은 마령면 일원에 임대형 스마트팜과 인력양성 스마트팜, 교육연구센터, 분양형 스마트팜 단지 등을 집적 조성하며, 핵심

시설 구축에 국비 200억 원이 투입된다. 지구지정형으로 선정된 김제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6-1공구) 내 기존 스마트팜 단지를 스마트농업육성지구로 지정받는다. 제도적 특례를 활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 이 부지에는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 스타트업 단지, 스마트 APC 및 가공센터 등을 포함한 세대통합형 스마트농업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번 선정으로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와 제도적 특례가 적용돼 사업 추진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건축허가, 농지·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도로·하천 점용 등 스마트팜 조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절차가 일괄 의제로 처리돼 행정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특례가 적용돼 수의계약 등을 통한 장기 임대(10년+10년 연장),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이 가능해져 민간 투자와 기업 유치 기반도 강화된다.



도는 농식품부 주관 2026년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공모에서 진안군(신규조성형)과 김제시(지구지정형)가 동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진안군 사업 위치도. <사진=전북도>

도는 이번 지구 지정에 계기로 청년농 창업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스마트농업 전후방 산업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현한다.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이에 대

해 "전북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은 전북 농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돈 버는 농촌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남원시, 모노레일 판결 수용...505억 조기상환 '총력'

4대 후속대책 공식 발표 시설 인수·함파우 거점화

남원시가 3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시설 정상화를 위한 4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년여간 이어진 민간개발사업 관련 법적 공방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와 향후 대책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앞에 시장으로서의 책무와 신념이 무색해지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 같은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시 재정 피해 최

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한 4대 추진계획을 밝혔다.

주요 골자는 △예산 절감분을 활용한 배상액 조기 상환으로 이자 부담 최소화 △구상권 청구 등 재정 손실 보전 총력 △시설물 인수 및 함파우 일대 관광 거점화 △민자 사업 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 등이다.

시는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배상액 505억원을 조기상환할 계획이다.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예산을 편성하고, 시 재정 손실을 매우기 위한 법적 대응도 이어질 전망이다. 시설물 소유자인 남원 테마파크(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또 모노레일 등 관광시설 인수를 검토해 안전점검과 보수를 거쳐 정상 운영에 나서고, 2030년 완공 예정인 경철수원원과 연계해 함파우 일대를 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모든 대규모 민간 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증과 의회 협의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전북도, 설 맞이 장애인생산품 5개 청사 순회 특별판매

남원·김제·익산·전북도청·정읍 11일까지...비대면 주문 병행 도청 행사 장애인표준사업장 참여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장애인생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를 넓히기 위한 특별 판매행사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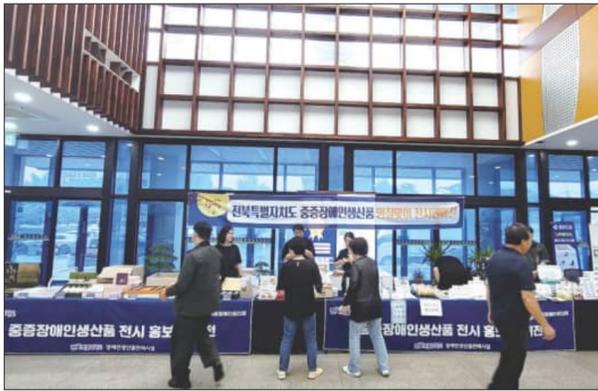
도는 3일부터 11일까지 남원시청을 시작으로 김제시청, 익산시청, 전북도청, 정읍시청 등 5개 청사에서 순차적으로 '설 맞이 장애인생산품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면 판매와 함께 유선·이메일 주문을 통한 비대면 판매도 병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판매행사는 ▲3일 남원시청 ▲4일 김

제시청 ▲5일 익산시청 ▲6일 전북도청 (1층 로비) ▲11일 정읍시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떡, 김, 누룽지, 홍삼, 육포 등 명절 선물세트와 비누, 물티슈, 참기름·들기름 세트, 구운소금 세트 등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6일 전북도청 행사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도 함께 참여해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힌다.

도는 이번 설 행사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 및 참여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도는 11일까지 남원시청, 김제시청, 익산시청, 전북도청, 정읍시청 등 5개 청사에서 순차적으로 '설 맞이 장애인생산품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

이원택, 민주당에 3특 '특별한위원회' 구성 제안

전북·강원·제주 역차별 우려 3특 지원체계 보완 촉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정부의 '5·3특' 국가 성장전략 추진 과정에서 자칫 전북·강원·제주 등 3특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주당 내에 가칭 '특별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수도권 일극을 넘어서기 위해 5·3특 초광역권을 키우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북·강원·제주 등 특별자치도가 다시 한 번 정책의 주변부로 밀려난다면 이는 또 다른 불균형"이라며 "5·3특 성장에 비례한 3특 지원 체계를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보다 책임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초광역 통합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통합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3특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새만금, 농생명산업, 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균형 성장전략에서 3특에 분류되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초광역 인



이원택 의원

센티브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이 제안한 가칭 '특별한위원회'는 민중당이 불공정한 갈음관계의 민생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을지위위원회'처럼 5·3특 구조 속에서 자칫 소외되고, 역차별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3특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설 기구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5·3특 성장전략에 상응하는 3특 재정·정책 지원 원칙 마련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3특 우선 고려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은 경쟁에서 이긴 지역만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강한 축과 함께 그 사이를 잇는 지역까지 함께 살리는 국가 전략"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등 3특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주역이 아니라 중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책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지방선거·설 민생대책 점검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 주재 개최 행정공백 최소·공직기강·정치중립 물가·안전 종합대책 추진 방역강화

전북도는 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6년 제1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설명절 민생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8일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하고, 도 각 부서에서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와 14개 시군 부단체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올해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으로 단체장이 사퇴하는 경우에도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체장 중심으로 시군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

해 선거사무 전반에 빈틈이 없도록 살피기로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교통·의료·안전 분야 종합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군의 세심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들이 외롭지 않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와 초동 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설 연휴 기간 사람과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고병원성 AI 방역 관리와 현장 점검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우리동네 새단장 사업과 관련, 각 시군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권 중심의 환경정비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과 지역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공명선거 관리와 민생 안정, 재난 예방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한랭질환 예방 수칙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을 가진 식사 하기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18~20도)를 유지하고, 건조해 지지 않도록 하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 활동은 자제 하기)



외출 후

따뜻한 옷 (장갑, 모자, 마스크)입기,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기

전주시 '농식품바우처 사업' 청년가구 확대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망 강화

전주시는 지역 생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올해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청년(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 포함된 가구'까지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만원, 4인 가구 월 1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액을 통해 '국산채소', '과일', '육류', '잡곡', '두부', '흰유', '임산물' 등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단,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자 이용자 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존 농식품바우처 이용 가구 중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농식품바우처가 갱신돼 지급된다.

사용 가능 매장은 마트와 편의점, 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식품바우처 카드 지정 사용처로, 농식품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2026 인구청년정책 포럼' 개최

'사람이 모이는 전주, 청년이 만드는 변화' 주제

오는 5일 전주시청 앞 현대해상 15층에서 오후 2시 '2026 전주시 인구청년정책 포럼'이 개최된다.

'2026 전주시 인구청년정책 포럼'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청년정책 방향 모색의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포럼은 '사람이 모이는 전주, 청년이 만드는 변화' 주제로 열린다.

포럼을 통해 "전주라는 도시가 앞으로 어떤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청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주요 논의의 이어진다.

포럼 시작은 양성일 분당서울대 학교병원 교수(前 보건복지부 제1차관)가 '인구정책, 청년에게 답이 있다' 주제 기조강연에 나선다.

기조강연에서 양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정책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용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이주영 전주시청연구원 연구위원이 '데이터로 보는 전주 청년의 삶'을 통해 전주 청년 인구 현황과 특징이 분석된다. 이후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 주제 발표가 따른다.

발제 후 조은주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인구변화대응연구센터 센터장과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auri 지역재생본부 본부장, 장재희 전주시의회 의원, 최서연 전주시의회 의원, 이영숙 전주시 청년정책과장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김명태 기자

폐가전 전용 집하장 구축...수거 서비스 강화

전주시, 삼천동 폐가전 전용 집하장 이전 완료 2일부터 본격 운영 개시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폐가전제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폐가전제품의 신속한 처리와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광역매립장에 위치한 폐가전 집하장을 삼천동 3가 889-8번지 일원(1371㎡)으로 이전 조성하고, 정상 운영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폐가전 집하장은 그동안 매립장 내에 위치한 관계로 운영시간 제한 등을 이유로 급증하는 폐가전 수거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신고 후 수거까지 30일 정도가 소요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몇 년 동안 운영시간 등 제한이 없는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마침내 인근 부지를 확보해 집하장을 이전하게 됐다.

새로운 집하장이 본격 운영되면서 기존 평균 30일가량 소요되던 폐가전 수거 주기가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주당 약 80건에 불과했던 수거량도 300건 이상으로 4배 이상 늘어나 폐가전 수거율과 재활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냉장고나 세탁기, TV 등의 대형가전과 5개 이상 묶음인 정수기·신풍기 등 중·소형가전은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용 사이트(www.1599.0903.or.kr)에 접속 후 '배출 예약' 메뉴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콜센터(1599-0903,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중·소형 가전제품 수거 대상 품목이 확대(60개→전품목)됐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E-순환거버넌스와 협업해 '중·소형 폐가전과 폐배터리'의 효율적인 회수 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용수거함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공동주택범상'의 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동식 폐가전 수거함'과 '폐배터리 수거함(500세대 당 1개)'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

고 있으며, 전용수거함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전화(063-281-8403)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수거함이 설치되면 5개 이상이 돼야 신청할 수 있었던 중·소형가전을 개수와 시간에 상관없이 배출할 수 있으며, 폐배터리까지 함께 배출할 수 있게 된다.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복지국장은 "폐가전 집하장 이전을 통해 폐가전 수거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유지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극대화해 자원순환 선도도시 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제9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공정성 침해 5대 선거범죄 엄정 단속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오는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월 3일부터 도내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34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지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한다.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후

보자 검증 차원의 비판 또는 의혹 제기 등을 넘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없이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서도 강력단속한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조직적 유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중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선관위·감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선제적 산불 차단! 안전한 전주 위한 선언"

시, '산불방지 대책본부' 가동

전주시가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3일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1층에서 '2026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봄철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선제적 산불 차단! 안전한 전주 위한 선언'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발대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원산·덕진구청장, 시 자원순환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

무원과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원 등이 참석해 산불 예방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전주시 산불 대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예방 활동과 신속한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총 116일간 운영되며, 근무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대책본부는 산림공원을 포함한 총 3곳에 설치되며, 하루 7명에서 최대 13명

의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상황 관리와 초동 대응, 현장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는 최근 산불 발생 시기가 특정 시기가 아닌 연중 지속되는 추세를 고려해 산불 대응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계화 진화대를 오는 5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만약의 산불 발생시에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취약지와 도로변, 교량 등에 소각금지경고판과 깃

발,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내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이용해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산불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계절에 국한된 재난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맞물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라며 "특히 봄철은 작은 부주의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혁신도시 악취 대응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전주혁신도시 내 지정아파트 거주자 대상 참여자 12명 모집

전주시는 오는 11일까지 전주혁신도시 인근 축산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활동할 '혁신도시 악취 모니터링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혁신도시 악취 모니터링단은 전주혁신

도시 내 지정 아파트 10개소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구성되며, 시는 아파트 단지별로 최소 1명 이상 총 12명의 모니터 요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아파트 내 게시판 및 관리사무소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전주시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덕진구 방릉로 88, 실용화지원2동 2층)

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모니터링단은 악취 발생이 잦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며, 혁신도시 내 일정 수준 이상의 가축분뇨 악취가 감지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악취 발생 위치와 강도 등을 실시간 감시하게 된다.

시는 악취모니터링단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악취 발생 상황을 신속히 판단

하고,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와 협력해 필요시 관련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미영 전주시 환경위생과장은 "악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악취 발생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악취 민원에 신속·적극 대응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추진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의료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비 소급설치 조기 완료를 목표로, 관내 미추진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소급설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및 별표4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존 의료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제도로, 기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화재 위험성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소급설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 발생 초기 자동으로 작동해 화염 확산을 억제하

고, 다수의 환자와 의료진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 소방시설이다. 특히 의료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고령자 등이 다수 상주하는 공간으로,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전주완산소방서는 현재까지 스프링클러 소급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령 이해 부족이나 공사 여건 등의 사유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시설의 조기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아중지구대 자살 시도 우울증환자 긴급복지·취업지원

관계기관 협업 재발방지 강화

전주 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는 최근 금전 문제로 자살 시도했던 우울증 환자에 대해 전북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의해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했다.

이번 연계활동은 자살 시도자에 대한 단순한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정신건강 상태와 자살 재시도 위험성,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과 지속 여부, 주거 및 생활 환경의 안정

성, 사회적 고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위기 대상자 조기 발견, 긴급복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등 맞춤형 제도 연계와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초고령사회 위협하는 대상포진... 60대 이상 10년 새 46.6%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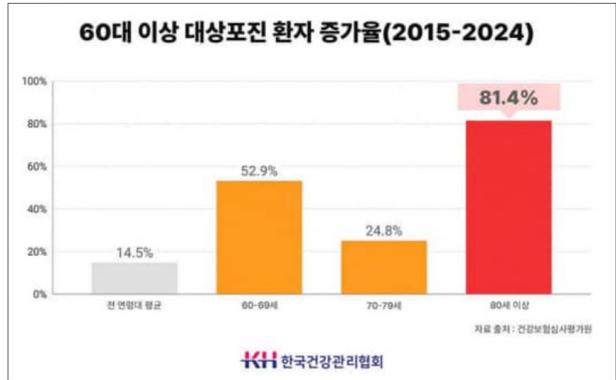
80세 이상 환자, 10년 새 81.4% 폭발적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60대 이상 대상포진 환자가 10년 사이 46% 이상 급증하며 고령층의 건강 수명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대 이상 대상포진 환자 수는 총 34만2359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23만3920명) 대비 46.4%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 전북 지부 정진숙과장은 "면역 저하가 악화된 고령층에게 대상포진 후 합병증은 장기적인 신체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고위험 요인이므로 조기 치료와 예방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상포진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이 아니라, 몸속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면역력 저하를 틈타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한다. 평생



시에는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지만, 면역력이 임계점 아래로 떨어지면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피부로 내려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한다.

초기에는 감기몸살과 유사한 오한과 발열이 나타나거나 몸의 한쪽 부위가 저

리고 쑤시는 전조증상이 나타나며 만약 눈 주변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홍채염이나 각막염을 일으켜 실명에 이를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뇌수막까지 침투할 경우 뇌수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바이러스가 신경 세포 자체를 파괴하며 증식하기 때문에 통증의 강도가

/정소민 기자

농진청 '저탄소 복합기술' 현장 실증

논콩 '깊이거름주기' '바이오차' 기술적용 수량 ↑ 온실가스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논밭 전환 농경지에 '깊이거름주기', '바이오차'를 적용하며 '저탄소 복합기술' 현장 실증을 살펴봤다. 그 결과, 논콩 수량은 늘고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콩 자급률을 43.5%로 높일 방침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논밭 전환 정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논콩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깊이거름주기 기술과 바이오차를 활용한 저탄소 복합기술을 개발했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진안', '경남 사천' 등 3개 지역에서 지난해 1년간 현장 실증을 진행했다. 현장 실증은 깊이거름주기 장치를 이용해 25~30cm 깊이에 화학비료를 투입했으며 표면에는 바이오차를 처리한 후 콩을 파종했다. 현장 실증 결과, 기존 비료 살포 후 로터리 작업(~15cm)하는 관행 처리보다 깊이거름주기(25~30cm)했을 때 논콩 수량이 평균 10~21% 증가했다. 이는 깊이거름주기로 질소 성분 위산과 유실이 줄고 '인산', '칼리' 성분 흡수율이 높아진 데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뚜렷했다. 담수 논벼 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은 논밭 전환으로 상당 부분 줄었으며 온실가스 일종인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논벼보다 질소 비료 투입량이 적어져 약 7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제 바이오차를 1헥타르(ha)당 2톤 투입했을 때 아산화질소 환산량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논밭 전환 농경지에 '깊이거름주기', '바이오차'를 적용하며 '저탄소 복합기술' 현장 실증을 살펴봤다.

(CO2-eq)으로 1헥타르(ha)당 약 3.7톤의 탄소를 토양에 저장하는 탄소 격리 효과도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실증으로 효과를



전기안전공사, 전통시장 노후 설비점검

약 8천개 점포 시설개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에 따른 전기안전캠페인 활동을 이어간다. 지난 2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하영 사장과 임직원들은 5일장이 펼쳐지는 지역에서 노후된 전기설비 점검·시설개선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지역민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섰다. 전통시장은 시설은 노후되고 점포가 밀집돼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 재

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의 자율적 예방활동과 안전문화 확산은 중요한 사항이다. 공사는 대명정 설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약 2주간 전국 60여개 전통시장 약 8천개 점포를 방문해 전기안전요령 리플릿과 홍보 물품을 나누며 안전캠페인을 전개할 전망이다. 남하영 사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공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중기부 '여성기업 육성사업 통합 공고' 시행

팜테크 산업 육성 포함 4개 분야·11개 세부사업

중기부는 '2026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기업 육성사업은 '여성 창업', '여성기업 판로', '인력 지원'과 함께 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여성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팜테크(FemTech) 산업 육성을 포함한 4개 분야,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총 지원 규모는 총 117.4억원이다.

2026년 '여성기업육성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팜테크(FemTech) 유망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8천만원 사업과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 연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예비)창업자에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여성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여성기업을 발굴하고, 입상자에게는 사업과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 희망 기업에는 수출 희망 국가의 실무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는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MD상담회, 협소공,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하도록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의무 구매 제도도 지속 실시한다. '여성기업 맞춤형 인력 매칭 플랫폼'

을 통해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해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또 청소년·청년 여성대상 멘토링과 IP도칭을 제공하는 창업 체험 사업을 진행하며, 여성기업인 대상 자금·AX·판로·해외진출 등 4개 분야별 전문 교육 과정을 도입·운영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예비)창업자 및 여성기업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서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신협, 신협운동 선구자 추모 방문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강연수 본부장은 전북신협 선구자 추모 방문을 전라북도 일원에서 실시했다. 전북신협 선구자 추모 방문은 전북지역 최초설립인가를 받은 이리성신협(現 이리신협) 설립 60주년(1966년 1월 28일)에 맞춰 실시됐다. 이와 함께 전북신협 60주년 사사집편찬 계기로 '나라를 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해하겠다'는 선구자들의 숭고한 뜻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기획됐다. 추모방문은 전주시 완산구 우림로(이영호 간사장), 국립임실호국원(박종묵 지도역), 전주 치명자산성지(지정환 신부), 하늘자리 금상동성당(유영철 부간사장)순으로 진행됐다. 각 묘소에서 선구자의 공적을 기리며 헌화 했고 이날 헌장을 담기위해 신협중앙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 촬영진이 함께했다. 전북신협 선구자 4인은 전북지역 신협설립에 많은 영향을 쏟았다. 전북지구평의회 이용호 초대 간사장(1925~1975)은 초창기 신협의 설립교육을 위해 헌신했다. 박종묵 지도역(1930~2022)은 전북지역에 신협운동의 불씨를 최초로 가져왔다. 지정환 신부(1931~2019)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지러와 자생할 수 있는 공동체 설립에 기여했다. 유영철 부간사장(1940~2022)은 전북신협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전북신협은 관내 70개 조합이 운영 중이며, 6개 지역평의회로 나뉘어 총 자산 10조원, 743명 임직원 51만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북신협은 서민금융 선두주자로서 선구자들이 지켜온 '민본정신'을 굳건히 지켜갈 것이다. /김영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품 가격안정' 총력

할당관세 적용 등 세계 혜택·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가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분석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 대비 2.1% 상승한 전체 물가 상승률과 유사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전년 대비 0.9% 상승한 것으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된 쌀과,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 수출국의 작황 부진 등으로 수입과일 가격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자가격 안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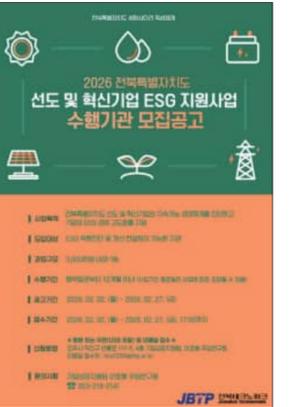
위해 지난달 23일 시장격리물량 10만톤 시행을 보류하고, 가공용 쌀 6만톤을 추가 공급했다. 벼 매입자금 지원 산지유통업체 매입 의무 기준 완화(150%→120%) 등의 내용을 담은 쌀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설 성수품인 사과는 큰 과일 비중 감소로 인해 상품 기준으로 조사되는 소비자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전국 공영도매시장 1월 사과 전체 크기·품위별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낮은 수준(12.4%)이며, 향후 설 성수기 출하물량이 확대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수입과일 3종(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30%→5%)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 중순 이후 해당 물량이 시중에 공급되면 가격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축산물은 사육마릿수 감소,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전년 대비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는 2022년 이후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사육마릿수를 줄이면서 금년 출하 물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했고, 돼지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1월 소비자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또 닭고기와 계란은 고병원성 AI(조

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 규모가 늘어나고, 유통업체 등의 설 대비물량 확보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를 대비해 농협계통 출하물량을 확대하고,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는 등 축산물 공급량을 확대하고, 공급이 감소한 계란 등 수급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수입산 공급량을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과 자조금을 활용한 납품자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공식품과 외식은 전년보다 각각 2.8%,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ESG 경영체계 확립 지원사업' 추진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ESG 경영체계 확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ESG 지원사업은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일환으로 추진됐다. 'ESG 경영체계 확립 지원사업'은 기업 ESG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해 기업 맞춤형 고도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3대 영역에 대한 ESG 역량 정밀진단 △지표별 대응 전략 및 개선 활동을 위한 전문 교육 지원 △ESG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개선 컨설팅 △핵심 과제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재평가를 포함한 사후관리 등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별 취약요소를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가이드 제공과 연계 사업비 지원을 병행하는 등 ESG 경영체계 실질적 내재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 함께 전북TP는 본 사업을 함께 /김영태 기자



수행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ESG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7일까지며, 선정된 수행기관은 도내 선도기업 및 혁신기업의 ESG 경영체계 구축과 정착을 지원하는 전문 파트너로서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연금 시작, JB가 응원해요'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 도래 고객의 첫 연금 개시를 응원하기 위해 '연금 시작, JB가 응원해요'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만63세가 되는 1963년 1월~6월생을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 전북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개시해 생애 첫 국민연금을 입금할 경우 캐시백 1만원

을 전연에게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전북은행 모바일뱅킹 앱 '속뱅크'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응모하고, 국민연금공단 또는 '내결재국민연금' 앱에서 전북은행 계좌로 국민연금 개시 및 입금하면 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이벤트 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비자정보센터 '항공여객 서비스 상담' ↑

항공여객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상담이 최근 3년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실제 피해가 동반된 사례도 크게 늘면서 계약 단계에서의 정보 제공 강화와 항공사·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겸)접수된 최근 3년 간 '전북지역 항공 서비스 소비자 상담'은 총 627건 등이다. 2023년 142건이었던 상담 접수 건수는 2024년 200건(40.8% ↑) 2025년 285건(42.5% ↑)으로 집계되며 3년 사이 약 2배로 급증했다. 상담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불만이 265건(42.3%)으로 전체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불이행(지연·결항) 113건(18.0%), 청약철회 91건(14.5%), 가격·요금 및 수수료 불만 39건(6.2%)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판매 방법별로는 온라인 및 모바일 거래 등 비대면 거래가 전체의 85.5%에 달해 온라인 예약 시 소비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동계체전' 훈련비 25% 인상

5년 연속 상위권 입상 목표 '아이들 맘방을 헛되지 않게 총력 지원'

전북교육청이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앞두고 훈련비를 25% 인상하는 등 학생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5년 연속 상위권 입상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전국동계체전에 출전하는 도내 46개 학교 학생선수 134명을 위해 훈련비와 대회 참가비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340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선수들이 장비 관리와 현지 적응 훈련 등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인당 80만 원 수준이던 지원금을 25% 올린 것이다.

대회는 오는 25~28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일원에서 분산 개최된다.

전북 학생선수단은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루지 등 다양한 종목에 출전해 갈고닦은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전북의 메달 효자 종목인 바이애슬론 선수 46명은 설원 위를 달리며 막바지 체력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최근 전락 종목으로 급부상한 컬링 선수 29명은 정교한 팀워크를 다지며 메달 사냥을 준비 중이다.

전북교육청은 바이애슬론과 컬링 등 특화 종목 선수들이 선진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해외 전지훈련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저변이 취약했던 아이스하키(19명)와 루지(10명) 등의 종목에서도 선수층이 두터워지며 특정 종목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잡힌 전력을 갖추게 됐다.

지난 제103회 대회부터 제106회 대회까지 4년 연속 종합 4위를 기록한 전북 학생선수단 올해도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전북교육청이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앞두고 훈련비를 25% 인상하는 등 학생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5년 연속 상위권 입상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으로 5년 연속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내 걸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학생선수들이 자

랑스럽다"며 "선수들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와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2026년도 제 1회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9~13일 응시원서 접수

3일 전북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응시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6개 권역에 시험장을 설치·운영한다.

1권역은 전주·완주·김제, 2권역은 군산, 3권역 익산, 4권역 정읍·고창·부안, 5권역 남원·순창·임실, 6권역 진안·장수·무주로 나뉜다.

실제 시험장 설치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이다.

응시원서 현장접수 기간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는 1일 단축된 12일(목)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현장접수 경우 초졸 및 장애 응시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으나, 초졸 및 고졸 응시자는 응시 희망 지역 6개 권역 교육지원청(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지원 가능하다.

귀족자 학력인정자 및 재소시설 응시자는 도교육청 창조나래 2층 접수처에 방문해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험 장소는 오는 3월 20일 오전 10시 공고되며, 시험은 4월 4일 치러진다.

최종 합격자는 5월 8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전국 첫 '학습지원 SW 가이드라인' 마련

실시간 질의응답 가능 챗봇 개발·현장지원체계 ↑

전북교육청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절차와 관련한 학교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학교의 장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SW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준을 준수하고 반

드시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취지이나 학운위 심의 준비와 각종 자료 작성 등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연말부터 에듀테크 전문교사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도내 모든 학교의 학습지원 SW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다수의 학교에서 활용하는 207개에 대한 자체 검증을 진행했다.

현장지원단 자체 검증은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이뤄졌으며, 전국 최초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

원회 가이드라인'으로 제작, 배포해 학교 현장 지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소프트웨어 별 자체 검증 목록을 제공해 학교가 손쉽게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한 챗봇도 개발해 궁금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서식 등 맞춤형 행정 자료도 함께 제공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전북교육청은 챗봇과 안내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도내 모든 학

교차 차질 없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전북교육청은 현장지원단 구성을 통한 전수조사부터 자체 검증 절차, 가이드라인 수립, 자체 검증 목록·챗봇 개발, 오프라인 설명회까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학교의 업무 경감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혜민 기자



군산대 생명과학과 PEBI팀, 습지식물 기능형질 공동연구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대학원장 권봉오)은 습지식물 기능형질 기반 국제 공동연구와 학술 교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연구를 위해 국립군산대학교 생명과학과 'PEBI'팀이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McGill University를 방문했다.

이어 맥길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한국과 캐나다 습지식물 생존 전략을 비교·분석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습지식물 '기능형질(Functional Trait)'은 식물 생존 전략과 진화적 적응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기능형질 데이터 거시생태학(Macroecology)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변화와 생태계 기능 유지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한국과 캐나다 습지식물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 국내 식물 데이터 단위와 측정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춰 정비하는 품질관리(QC) 작업을 수행했다.

또 다변량 통계 분석을 통해 식물의 다양한 형질 간 관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자원 획득과 보존이라는 생존 전략이 서로 다른 생태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했다.

이는 한국의 습지식물 데이터가 국제 연구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협력을 통해 PEBI팀은 국제 표준 기반 데이터 관리 역량과 고급 통계 분석·해석 능력을 강화했다.

향후 한국-캐나다 비교연구 및 추가 국제 공동연구로의 확장 가능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립군산대학교는 국제 사회와 산업 현장에 기여하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새 학년 준비 본격...교육과정 운영 설계 지원

전주교육지원청 '초등 교육과정 세움 지원 연수' 운영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세움 지원 연수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연수는 새 학년을 앞두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고, 교원 교육과정 운영 역량

과 수업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오는 10일과 14~15일 3일에 걸쳐 운영되는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정적 정착과 새 학년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 학년별·주제별 현장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초등 교육과정 설계·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 △사회와 지역화 교재 활용 △입학초기 적응활동 지도 △기초학력 시스템 활용

등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교육과정 주요 변화 안내, 교재 활용 방법, 학급 운영 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 현장 적용 중심의 실질적인 연수를 통해 교원이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새 학기 학생 지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화 교재 '전주의 생활(3학년)'에 담긴 전주의 인물(이병) 이야기와

함께 학습자료인 전주지도와 전주말판 놀이의 구성 및 활용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선영 교육장은 "교육과정 세움 지원 연수는 교원이 새 학년 교육과정을 충실히 준비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정 실행력을 높이고 학생 중심 교육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정읍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접수...연간 13만원 문화 혜택

정읍시가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13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을 오는 3월 6일까지 받는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은 도시보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여성들에게 건강 관리와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된 복지 시책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 농업인이다. 시는 접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상자 오류 검증 작업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개인당 연간 13만원이며, 총사업비는 4억 8000여만원이 투입된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소지한 농협 채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학수 시장은 "생생카드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정읍시, '산림재난대응단' 출범...봄철 산불 방지 '총력'

출범...봄철 산불 방지 '총력'

정읍시가 건조기를 맞아 산불 등 각종 산림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읍면동 산불감시원, 산림재난대응단, 관계 공무원 등 14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 및 산불 방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은 본격적인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이해 현장 대응 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체계적인 감시 활동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청 정책에 발맞춰 기존의 산불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을 하나로 묶은 '산림재난대응단'을 새롭게 출범했다.

이에 따라 읍면동 감시원 74명과 산림재난대응단 50명 등 총 124명의 전문 인력은 평상시 논·밭두렁 무단 소각 행위 감시와 계도 활동을 수행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초동 진화에 투입된다. 이학수 시장은 "최근 잇따른 재난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불감시원과 대응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본격적인 영농 준비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홍보 활동에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오는 9~24일까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집중점검

군산시가 설 연휴 기간 관리·감독 취약 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설 연휴 특별감시 활동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9일부터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눠 특별 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감시 기간, 군산시는 산업단지 등 오염우심지역,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홍보·계도와 환경순찰, 단속, 기술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연휴 전 단계에는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 및 인근 하천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연휴 기간에는 수질오염 등 환경 사고에 대비해 환경오염행위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 상황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연휴 이후에는 장기간 가동중단 후 재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재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제3산업단 확장 '전격 착수'

27만㎡ 규모 추가 조성 본격화...경제 영토 확장 가속도

익산시가 미래 신산업 거점 확보와 기업 유치를 위한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의 첫 삽을 뜨며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에 나섰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익산 제3일반산업단 확장 조성 사업이 착공에 돌입했다. 이번 확장 사업은 기존 제3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약 27만㎡ 규모의 산업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향후 추진될 대규모 신규 산업(제5산단) 조성 전, 폭발적인 기업 수요를 선제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략적 확장'이다.

특히 동우화인켐㈜, ㈜제이비케이랩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들이 이미 입주해 대기하고 있어, 조성 완료와 동시에 가시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시는 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상반기 내 미보상 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미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토공 작업에 즉시 착수하는 두트랙(2-track) 공방을 가동한다.

현장 사무실 설치와 가설 웹스 설치 등 기초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입주 대기 기업들이 조기에 투자 계획을 수립



제3일반산업단지(확장단지) 조감도

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행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3산업단 확장은 단순히 면적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익산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제5산단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로 가는 길목에서 단 한 곳의 기업도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는 산업용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직원 전입 유도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참여 의지 동기 부여

현금 최대 200만 원 지원

정읍시가 인구 유입에 기여한 관내 기관과 단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인구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사업은 인구 문제에 대해 지역 내 민간 영역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속 직원의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단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참여 의지와 동기를 확실하게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입 유망 기관, 단체, 기업체다.

소속 직원 2명 이상이 정읍시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1인당 20만원의 인센티브를 해당 기관에 지급한다. 지원 한도는 기관별 최대 200만원이다.

자격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타 지자체에서 정읍시로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인센티브 지급 시점까지 정읍시 내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이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입자의 주소 변경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

서, 통장 사본 등이다. 이학수 시장은 "인구 문제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지역 내 모든 기관과 단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전입 유망 인센티브 지원이 민·관 상생하며 정읍시의 인구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읍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선정

경암동·박물관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 혜택 제공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작년에 이어 '2026년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올해 한 해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직매장은 주차별 해당 농축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할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2월 16일까지 군산로컬푸드직매장(박물관)과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경암동)에서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 후 주차별(1주일) 할인 품목 구매액의 23%를 1만 원 한도에서 할인받게 된다.

주차별 할인 품목은 △1월 29일~2월 4일(1주차) 통배추·통무·배·포도(샤인머스켓)·감귤류·소·돼지·닭·달걀 △2월 5일~11일(2주차) 통배추·통무·배·포도(샤인머스켓)·감귤류·돼지·닭·달

걀·알밤·간밤·건대추·세척대추 △2월 12일~16일(3주차) 통배추·통무·배·포도(샤인머스켓)·감귤류·돼지·닭·달걀·시금치·알밤·간밤·건대추·세척대추이며, 축산물 중 냉동육·다짐육·절단육은 제외된다.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지나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에 선정돼 시민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도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잇는 상생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일상 만든다

악취저감 종합추진계획

시행...현장 중심 대응 강화

익산시가 악취 저감 대책을 본격 추진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2026년 악취저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악취 관리를 위해 상시 감시와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상시 24대의 악취 측정 장비와 측정 차량을 운영하며 상시 감시를 진행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바람 방향을 역추적해 악취 발생 위치와 성분을 분석하고, 사업장 현황을 확인해 신속한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중점관리사업장과 야간조업사업장 등 특별점검 대상 57곳에 대해서는 야간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 통합허가 사업장 21곳은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업체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전체 악취 민원의 76%를 차지하는 축산악취 해소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영농철에는 퇴·액비 살포를 집중 단속하고, 하절기에는 도심 인근과 민원 유발 축사 55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축산악취 상시감시반을 운영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김제시·완주군이 함께 참여하는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를 통해 인접 지자체 간 현장 대응과 정책 자문을 공유하며, 실

효성 있는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민관 거버넌스 중심의 악취 행정으로 시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악취 영향권에 있는 주요 공동주택을 선정해 인근 오염원을 정밀 분석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찾아가는 맞춤형 악취 상담회를 통해 시민 이해를 높이고, 민원 해결을 위한 소통에도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악취 민관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축산농가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회를 실시해 자율적인 시설 관리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악취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모집

최대 1,080만원·이자 수령

군산시가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의 근로 소득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는 근

로소득 장려금으로 1년 차 10만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3년이 지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 720만 원을 합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단,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산시는 이 제도가 사회 취약 가구의 경제적 홀로서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예술성·대중성 아우른 익산예술의전당 라인업

익산시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풍요로운 예술로 채워간다.

익산예술의전당은 2026년 한 해 동안 예술성과 대중성, 공공성을 두루 갖춘 기획 공연과 전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공연장에서는 세계적 연주자와 국립단체의 수준 높은 무대가 이어진다. 5월에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클라라 주미강 & 김선옥 듀오' 공연이 열리며, 10월에는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무대에 오른다.

또한 국립현대무용단(4월), 국립국

악관현악단(7월) 등 국립단체의 수준 높은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11월 '블루노트 도쿄 울스타 제즈 오케스트라 & 리사 오노' 내한공연이 열려 재즈의 정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는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야외 전시 '산책하는 집' 시작으로 익산 지역 작가를 재조명하는 '익산미술상생전'이 3~5월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2026년에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리고 체험하며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글로벌 청년 겨울캠프' 2기 개막

23개국 유학생 머문다

정읍시가 지난 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전 세계 23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정읍 글로벌 청년 겨울캠프' 2기 운영에 돌입했다.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겨울철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 청년들이 정읍에 일정 기간 머물며 지역의 문화와 일상을 깊이 있게 경험하도록 기획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이번 2기 프로그램은 1기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1기 당시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정읍농악과 씨름 등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전통문화 체험을 강화해 외국인 청년들이 한국과 정읍의 미(美)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는 2기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청년들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 체험형 관광 정책의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 글로벌 청년 겨울캠프 2기 운영을 통해 겨울철 관광 비수기 대응과 함께 체험형 관광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부도 위기 뚫고 '멈췄던 아파트' 준공

익산시가 시공사의 부도로 장기 표류 위기에 처했던 공동주택의 준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는 건설업계의 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선제적인 중재와 파격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지켜낸 사례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합일소재 공동주택 신축 현상이 공사 중단이라는 큰 고비를 넘기고 준공을 완료했다.

해당 현장은 2024년 12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전격 중단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불안과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 우려가 있었던 곳이다.

익산시는 사태 직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피해 점수를 신속히 시작하는 한편 입주예정자, 협력업체, 금융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는 민·공용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영건 실태타래를 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공사 중단 두 달 만인 2025년 2월 공사 재개를 이끌어냈으며, 지난달 29일 마침내 준공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준공에는 익산시의 전략과 유연한 행정이 뒷받침됐다. 시는 은행 및 HUG와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중도금 이자 납부 유예와 대출 기간 연장을 이끌어내며 입주민들의 자금 압박을 해소했다.

또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두 차례 유예하는 파격적인 행정 결단을 내렸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이 공사 현장에 우선 투입되도록 유도하며 공사 중단 위험을 원천 차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군, 문예회관 특성화 사업 선정

신작 공연콘텐츠 제작 분야 지원·선정 전북 최대 지원액 확보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부안예술회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문연)가 주관하는 2026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전북지역 문예회관 가운데 최대 지원액을 확보하며 지역 창작공연 제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문예회관이 단순 대관 중심 운영을 넘어 공연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을 주도하는 공공 제작극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단위 공모사업으로 전국 17개 시·도 117

개 문예회관, 121개 프로그램이 접수돼 지난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95개 문예회관이 최종 선정됐다.

부안예술회관은 신작 공연콘텐츠 제작 분야에 지원해 창작뮤지컬 '소금 위에 새긴 시간, 고포스' 기획안으로 전국 군 단위 문예회관 중 지원 규모 면에서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창작뮤지컬 '소금 위에 새긴 시간, 고포스'는 일제강점기 고포염전을 배경으로 동학농민혁명 이후 염전 노동자로 살아가는 가족의 삶을 통해 부안 민중의 역사와 공동체의 시간을 그려낸 작품이다.

공포염전을 단순한 공간이나 기록이 아닌 사람의 삶과 선택이 축적된 장소로 바라보며 노동·저항·공동체의 기억을 서사 중심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작품은 클나무오케스트라와 함께 창작뮤지컬로 제작되며 고포염전의 소금

밭과 포구, 변산의 풍경 등 부안의 자연과 노동의 현장을 무대와 영상으로 입체적으로 구현한다.

역사적 사건의 나열이 아닌 가족 서사를 중심으로 한 감정선에 집중해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부안예술회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단체와의 협업 제작 체계를 강화하고 공연을 중심으로 교육·체험·관광과 연계 가능한 융합형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재공연과 시즌제 운영, 학교 연계 관광 프로그램 등으로 확장해 부안을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관광객에게는 부안의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는 대표 공연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 서해안 복분자주, 호주 수출

약 2만 병 선적

고창의 대표 특산주인 복분자주가 호주 대륙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2일 서해안 복분자주(대표 송지훈)가 호주 수출을 위해 약 2만 병(약 1억원)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서해안 복분자주 브랜드 제품인 '선운'은 엄선한 고창산 복분자를 황토 토굴에서 발효·숙성시켜 깊은 맛과 향을 살린 프리미엄 술이다.

2003년 대통령상주, 2005년 APEC 공식만찬주, 2017년 청와대 만찬 건배주로 선정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물량은 호주 현지 마트와 한인마켓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작년 뉴질랜드에 이어 오세아니아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복분자주가 해외에서 인정받는 것은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라며 "호주 시장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에서 고창 복분자주를 맛볼 수 있도록 지원에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말띠직원 청렴실천의지 다져

고창군이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지난 2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팻말 교환식'을 열었다.

고창군수와 90년생·02년생 말띠 직원들은 청렴 실천을 약속하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이를 서로 교환했다.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자세를 담은 메시지를 통해 군수의 솔선수범과 직원들의 헌신 실천 다짐을 상징적으로 공유하며, 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창군은 "청렴은 모든 공직자가 함께 지켜야 할 기본 가치"라며,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계기로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가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이번 청렴팻말 교환식을 시작으로 △부정부패 모의신고 훈련 △찾아가는 반부패 법령교실 운영 등 직원 참여형 청렴 활동 등 대군민 공감형 캠페인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행정 구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사랑상품권 "효자 노릇 톡톡"

민선 8기 이후 발행 규모 가맹점 ↑ 시민 경제 버팀목

김제시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지역화폐인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제사랑상품권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발행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민선 8기 출범 당시 900억 원 발행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1,000억 원을 발행하며 지역 내 소비 기반을 크게 확충했으며, 2026년에는 1,1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상품권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가맹점 확대에도 적극 나서, 2,500여 개 수준이던 가맹점을 현재

4,300여 개까지 확대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다 폭넓게 김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김제사랑상품권 이용자는 4만 6천여명으로 연령대별 10대~20대 5,363명(11.6%), 30대 10,018명(21.8%), 40대 10,763명(23.4%), 50대 9,690명(21.1%), 60대 이상 10,173명(22%)으로 김제사랑상품권의 사용 편의성 덕분에 젊은 층뿐만 아니라 고령층에서도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제사랑카드 충전 시 12% 선할인을 실시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김제사랑카드 결제 시 결제금액의 3%를 캐시백으로 추가 지급 하는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시 선할인 12%를 포함해 최대 1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김제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할인 구매 및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판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매출 증대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해 지역 자급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사랑상품권은 민선 8기 핵심 민생경제 정책으로, 발행 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및 고향사랑페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제=은봉기 기자

2026 부안 활동가 홍보 청년 서포터즈 모집

9~20일까지 신청

부안군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청년의 시각으로 기록하고 홍보하는 2026 부안 활동가 홍보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군에서 활동하는 청년과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활동가를 발굴해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게시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가치와 삶의 모습을 전달함으로써 지역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모집 인원은 3명(팀)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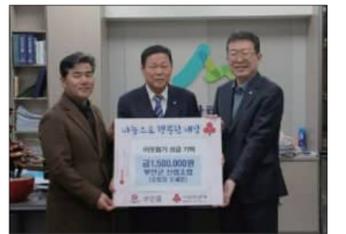
활동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약 10개월간 운영된다.

선발된 서포터즈에게는 매월 4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 홍보와 청년 역량 강화의 기회도 함께 제공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부안군청 청년정책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직접 지역을 기록하고 홍보하는 과정이 부안에 대한 공감과 애정을 키우고 정착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산림조합, 부안군에 이웃돕기 성금 150만원 기탁

부안군 부안읍(읍장 김병태)은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이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성금 15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정 기탁돼 설 명절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외롭게 보내야 하는 독거노인 등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오세준 조합장은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산림조합으로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정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부안군산림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부안군산림조합은 명절 나눔 활동을 비롯해 장애인단체 후원과 군농민재육성재단 장학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증가세

최근 3년 새 23% ↑ 농가 경영안정 강화

고창군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이 최근 3년 사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농가 경영안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9992호, 가입 면적은 1만4601ha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8134호, 1만2615ha

대비 가입 농가 수는 약 23%, 가입 면적은 약 16%늘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며 농가의 경영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고창군의 단계적인 군비 지원 확대 정책이 맞물리며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고창군은 농작물재해보험 군비 지원 비율을 2022년 15%에서 2023년 20%로 확대하고, 2024년에는 25%까지 상향했다.

이에 따라 농가 자부담 비율은 20%

에서 10%로 낮아져 농업인들의 체감 부담이 크게 줄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약 50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2월부터 가입이 진행되며, 품목에 따라 가입 기간이 다르게 운영된다.

특히 가을배추도 8월부터 가입이 가능해, 해당 작목 재배 농가의 재해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인근 단위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코리아돌레길 성과 평가 '우수'

고창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조창환)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관 '2025년 코리아돌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평가는 코리아돌레길 사업에 참여한 전국 28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 실적, 이용자 만족도, 전문가 압력 현장점검, 최종 발표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고창군은 서해안길 권역 내에서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AI 기반 시스템 도입 등 단기간 내 쉼터 운영 방식 개선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7가지 보물을 활용한 걷기 프로그램 운영(2173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한 쉼터지기의 배치 등이 좋은 평가를 득점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조창환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앞으로 전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치매 환자 조호물품 무상 지원사업 '연중 시행'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호물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조호물품은 치매안심센터에 신규로 등록하는 재가 치매 환자에게 최초 1회 제공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치매 환자에게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지급하고 있다.

지원 품목은 환자의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한 성인용 기저귀, 요실금 팬티를 비롯해, 투약 관리를 돕는 약 달력,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미끄럼방지 양말 및 매트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환자의 가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환자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전북도 김문강 과장, 김제시에 고향사랑기부

1천만원 기탁

김제시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 김문강 과장이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문강 과장은 과거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 가족센터)에서 약 5년 센터장으로 근무했으며, 이 시기에 삼성그룹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기업인 글로벌투게더김제를 조직한 바 있다.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이번 기부를 통해 받은 답례품 포인트로 글로벌투게더김제의 답례품을 구매해 김제시 가족센터에 전달했다. 고향사랑기부로



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된다"면서 "김제시에서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이라는 뜻깊은 사업을 위해 모금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신적으로 근무하셨던 김문강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김제시를 위해 소중한 기부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맡겨질 수 있도록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 변산면 희망소통대화, 고향사랑기부동행 계속

김제시는 성별에 따른 당직근무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성평등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성통합당직제를 도입해 2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 당직근무는 남성 공무원이 평일 및 휴일 야간 숙직을, 여성 공무원이 주말·공휴일 주간 일직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여성 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남성 공무원의 숙직 근무 주기가 짧아지는 등 성별 간 근무 부담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

돼 왔다.

이에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당직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을 실시했으며, 다수의 직원이 성별 구분 없는 통합당직제 도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남녀 직원이 동등하게 일·숙직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당직 시스템을 개선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통합당직 운영을 통해 당직 근무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순창군 농협, 기본소득 '경제 선순환' 구축

군, NH농협 4곳과 업무협약 체결 기본소득 매출 일부 상생기금 조성 면단위 사용자 확대·환원사업 추진

순창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NH농협 순창·동계·구림·서순창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과 연계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생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실질적인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순창군과 4개 농협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및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발행·유통·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에 상호 협력하고, 기본소득 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지역상생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환원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



순창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NH농협 순창·동계·구림·서순창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순창군>

매장 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을 통해 교통·접근성문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더불어, 4개 농협 조합 간 연계사업으로 기본소득데이, 나눔온정장터, 로컬푸드 매장확장 운영 등 조합별 특수 시책을 추진해 환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특히 농협 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조합별 취급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용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역 여건과 소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급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이 생활 속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

건축사회 남원시지회와 체결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남원시는 지난달 28일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회 남원시지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회회 간 중앙 협약을 토대로,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들은 설계·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해당 주택의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대한건축사회 남원시지회는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금지면 하도리 일대에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별도의 협약 없이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피해 주택 32건에 대해 무상 설계를 지원한 바 있다.

남원시 건축과장은 "피해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회, '용인 삼성 반도체' 새만금 이전 촉구

이주갑 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삼성 새만금 우선투자' 이행해야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3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주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및 삼성의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주갑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삼성은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신규 투자 시 새만금 우선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를 명문화한 바 있다"며 "이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삼성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조적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용인 부지는 협준한 산악 지형과 문화제 시

굴 조사로 인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며, 특히 가동에 필요한 16GW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 건설은 '제2의 밀양 사태'와 같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며 사업 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열병 문제에 대해 "이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기업들이 정밀 공조 설비로 극복한 사례가 있다"고 일축하며 "새만금은 광활한 평지와 2029년까지 확보될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갖춰 국내 유일의 최적지"라고 확인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팹 새만금 분산 배치 촉탁 추진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전략 수정 및 새만금 이전 지원 △전주-완주-새만금을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 등을 건의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농가 경영 소통' 농림수산발전기금 70억 집행

남원시의 농림수산발전기금 대출 실적은 2025년 들어 최근 수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에 따르면 2025년 농림수산발전기금 대출 실적은 총 29건, 약 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영안정자금은 19건, 18억 원, 시설자금은 10건, 52억 원이다. 이는 2024년 7건, 8억 7천만 원 대비 약 8배 증가한 수치로, 농림수산발전기금이 경영안정과 시설 확충 등 농가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농가와 농업법인, 농산물 유통·가공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실제 신청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출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림수산발전기금은 일시적인 자금 지원을 넘어 농가 경영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앞으로도 기금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매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1차 신청은 오는 2월 6일까지 진행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이돈승, 완주·전주 통합 추진 "강한 유감...군민이 결정해야"

이돈승 완주군수 출마예정자가 지난 2일 안호영 의원이 정동영·이성윤 의원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돈승 출마예정자는 3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전주·완주 행정통합에 반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통합은 정치인의 선언이 아니라, 완주군민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출마예정자는 "2일 기자회견은 사실상 무산된 통합 논의를 다시 정치의 전면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통합을 둘러싼 갈등과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가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앞장서 논쟁을 재점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특히 이 출마예정자는 "전주·완주 행정통합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며 "통합의 결정권은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에게 있으며, 그 어떤 명분도 주민의 선택을 대신하거나 압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통합 논의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완주군의회와 주민의 뜻을 묻는 정당한 과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순창읍 주민 강구원 씨 500만 원 성금 기탁

순창군 순창읍 시가마을에 거주하는 강구원(75세) 씨가 지난 2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전담했다.

강구원 씨는 2016년부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왔으며, 지난해에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선행으로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강 씨는 "저 역시 어렵게 살아왔기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며 "의미 있는 곳에 잘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최영일 순창군수는 "매년 잊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관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기본사회'와 맞손...지역 맞춤 정책 추진

3일 협약식...주민 100여명 참석 햇빛 연금 등 사업 모델 발굴·협력

완주군이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손잡고 지역 여건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사업 발굴·추진에 나선다.

3일 완주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발전 및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명예이사장, 정균승 부이사를 비롯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본사회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기본사회 정책사업 기획·추진 △정책



완주군은 3일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지역발전 및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완주군>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정보 교류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연계 △정책 성과 공유 및 확산 등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완주군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햇빛 연금 등 지역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유해자원과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협약식 이후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완주형 태양광 재생에너지 추진 방안' 설명회가 열려,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득 창출 사례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제96회 춘향제 SNS 시민홍보단 모집

서포터즈 30팀 선발...3개월 활동 활동비·기자증 지급 우수활동 혜택

남원시는 남원시와 춘향제의 다채로운 매력을 생생하게 전할 'SNS 시민홍보단'을 모집한다.

올해로 2기를 맞는 SNS 시민홍보단은 남원의 명소와 관광, 축제, 맛집 등 다양한 주제를 직접 취재해 개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하는 춘향제 공식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이달 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선발 인원은 총 30팀으로 기자 10

팀과 영상콘텐츠 20팀으로 구성된다. 평소 남원의 골목골목 맛있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고 스마트폰과 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에 능숙한 SNS 채널 보유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포스터 QR 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소셜미디어 활용 능력, 관련 경력, 포스팅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며, 보유 채널의 활동 지수가 높거나 외국인 학생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최종 선발 결과는 2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선발된 SNS 시민홍보단은 위촉료로 부터 약 3개월간 춘향제 소식을 비롯해

남원의 관광, 문화, 맛집 등 생활 전반을 취재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활동자에게는 오리엔테이션과 SNS 활용 교육 이수 후 공식 기자증이 발급된다. 또한 취재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는 제96회 춘향제 방문 시 숙박권 지원과 '대동 길놀이' 등 주요 프로그램 우선 참여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홍보의 주체가 되는 소통 행정의 상징으로서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유익식 완주군의회장 "행정통합, 자치·민주주의 문제"

'발전논리포장·자치권 약화 우려 재정자립 해법 핵심 지방정부 권한'

완주군의회 유익식 의장은 3일 열린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행정통합은 단순한 발전 논리가 아닌, 자치와 민주주의, 완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익식 의장은 "완주군의회는 지난 1월 28일 '새로운 완주, 주민자치 1번지 대토론회'를 통해 완주의 현재와 미래

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전문가들과 통합 찬반 주민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 행정통합은 반드시 주민 자치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은 흔히 발전의 언어로 포장되지만, 전국의 사례를 보면 주민의 자치권이 약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간이 축소된 측면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완주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완주의 정체성은 행정구역의 선으로 만들

어진 것이 아니라, 만경강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축적된 역사와 생활, 주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라며 "이는 단기간의 제도 변화로 대체되거나 흡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제·재정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 경쟁력은 규모가 아니라 고유성에 기반한다"며 "재정자립의 해법 역시 무조건적인 확대나 통합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구조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동계 전국실업검도대회 6~9일 개최

전국 23개 실업팀 200여명 참가 4년 연속 유치 지역경제 활력 도모

'2026 동계 전국실업검도대회'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남원시가 후원하고 남원시체육회와 한국실업검도연맹이 주최하며, 전북검도회와 남원시검도회가 주관한다. 대회에는 전국 14개 시·도에서 23개 실업팀 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 경기로 진행되며 6일 남자부 개인전(3단~4단

부), 여자부 개인전, 7일 남자부 개인전(5단~6단부), 여자부 단체전(3인조), 8일 남·여 단체전(5인조) 경기가 치러진다. 대회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남자부 단체전(7인조)이 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 대회에 이어 4년 연속 대회를 개최하며 지역 스포츠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의 명문 실업팀들이 겨루는 이번 대회에 시민과 검도 동호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봄철 산불방지 발대식 "산불 없는 순창" 결의

5월 15일까지 비상근무 돌입

순창군이 2026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산림보호 행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영일 순창군수와 공무원 진화대, 산림 재난대응단, 산불종사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봄철 산불방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산불 발생 시 신고 요령, 진화 장비 사용법, 안전 사고 예방 등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이 실시됐다.

군은 2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군청 산림공원과 11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부서를 설치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특히 산불 취약 지역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무인 감시 카메라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 진화대'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이고 일상불란한 산불 대응 지휘 체계를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장수군 보건의료원, 마을회관 방역 소독 실시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노승무)은 지난 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장수군 전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동절기에는 기온 저하로 환기가 부족해지고 실내 이음이 증가함에 따라 월동 해충과 병원체로 인한 위생·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체계적인 방역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장수군은 겨울철 마을 주민들이 즐겨 찾는 마을회관 내 화장실, 심크대, 신발장 등 위생 해충이 서식하기 쉬운 장소를 집중적으로 소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바퀴벌레, 월동모기, 집파리, 벼룩 등 월동 해충은 제한된 실내 공간에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특성이 있어 이 시기에 집중 방제를 실시할 경우 큰 효과가 있어 지속적으로 동절기 마을회관 일제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방역소독은 군 전 마을회관 23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휴대용 분무기를 활용해 마을회관 1개소당 총 4회의 잔류분무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은 주민 이용 시간과 안전을 고려해 추진되며 위생 해충 발생 우려가 높은 실내 공간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이뤄진다.

또한 방역 소독에는 보건복지부 안전검사를 필한 친환경 유해충 구제제를 사용해 방역 후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 여행 사업설명회 개최

진안군과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3일 진안읍 외사양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2026년도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사업'에 참여 예정인 10여 개 마을의 위원장과 사무장, 실무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김경민 주무관이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참여 마을과 함께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환경 개선과 마을여행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안군은 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프로그램 기획, 홍보,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은 진안군의 특화된 마을만들기 정책과 연계한 자체 농촌관광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해 마을만들기 사례 강의, 농촌체험, 마을탐방, 마을식사, 마을숙박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 천천면 지사협, 2026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장수군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먼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현원 천천면장, 조규덕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협의체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 연간 운영계획 수립과 주요 특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복지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에도 협의체는 주민 호응이 높았던 취약계층 안부 확인을 위한 음료 나눔 사업과 어린이 대상 학습용품 쿠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덕 민간위원장은 "협의체와 행정이 서로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탄력

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담팀 신설,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위원회 결성 등 무주형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사업추진의 첫 관문인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가 지난 2일 최종 마무리됐다.

이를 기반으로 무주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등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일제 금액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2025년 공모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군비) 184억 원으로, 개인별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무주군의회와 협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노창환 무주군 기본소득 위원회 위원장(무주군 부군수)은 "이제 무주형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실행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군민이 체감하는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시행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제도가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조정하는 절차로, 이번 협의는 전국 군 단

위 지자체 중 최초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의 공식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 여부'는 기본소득이 수급자들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12월 18일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협의자료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한 지 2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승인받았다"라며 "쟁점 안전 처리에 통상 6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큰 성과"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

14부터 18일까지 5일간 134명 배치 등 종합상황실 운영

임실군이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생활민원 해결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과 안전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총 134명의 근무 인력을 배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분야별 비

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설 명절 종합대책은 △재난·재해대책반 △물가대책상황반 △생활환경개선반 △상·하수도대책반 △교통대책반 △의료방역대책반 △가축 방역대책 상황실 등 총 7개 분야를 가동한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생활 민원을 즉시 해결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가족들과 정겨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특히, 군은 명절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해 군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비상 진료를 실시하는 관내 병·의원 및 약국 현황에 대한 자체 한 안내는 임실군 보건의료원(063-640-31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명절 연휴 동안 생활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비를 강화하고,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현장 대응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대책반을 중심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명절 맞아 '장수가꿈드림' 세트 전달

군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 세트

장수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가공한 농산물과 식품으로 꾸러진 '장수가꿈드림' 300세트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장수가꿈드림'은 장수군에 기부된 소중한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잡곡, 사과 등 농산물과 장수한우곰탕, 장수한우육개장 등 가공식품 12종의 먹거리 세트(10만원 상당)이다.

장수군은 2020년부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먹거리 나눔 사업(행복꾸러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한층



발전시켜 새로운 먹거리 꾸러미 '장수가꿈드림'을 전달하고 있다.

군의 이러한 노력이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

대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접수 시작

읍면농업인상담소 통해 신청

진안군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산불 위험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동력 파쇄기를 갖춘 전문 인력이 농지에 직접 방문해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으로, 소각 대신 퇴비나 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부산물 처리와 함께 농촌환경 개선 및 자원순환 농업 실천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파쇄 대상은 과수 전정 가지를 비롯해 고춧대, 들깨, 참깨 등 수확 후 남은 영농부산물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월 20일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농가 중 △산림



진안군은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연접지(100m 이내) △고령층·취약층·여성농 △일반 농경지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농가는 작업 전 필지 내 영농부산물을 한곳에 모아두고, 노끈·비닐 등 이물질은 사전에 분리해야 한다. 파쇄된 부산물은 현장에서 바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살포된다.

진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은 물론, 영농부산물 자원화를 통해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임산부·영유아 위한 맞춤형 보충식품 월 2회 배송

임실군은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2026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 위험이 높은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문제를 개선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생후 66개월까지)를 둔 가구로, 보건의료원에서 소득·재산 조사와 영양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 분유 등 맞춤형 보충식품이 월 2회 가정으로 배송되며, 영양교육과 개인별 영양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보건의료원 영양플러스실(063-640-3140)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6일까지 온라인·방문 접수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도시민들을 손짓하고 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3~12월)은 무주로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는 10세대에 주택과 텃밭을 유상 제공하고 토마토 시설하우스 1동과 버섯 시설하우스 1동, 공동경작지 1곳에서 영농 재배 실습을 진행한다.

또한 귀농·귀촌 정착 실용 교육과 농업 경제·경영 기초교육도 함께 마련된다.

접수 마감은 오는 6일까지로, 무주군청 누리집에서 입교신청서와 농업창업계획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이메일, 그린

대로 누리집) 접수하거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무주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가운데 공고일 현재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최종 입교 세대는 농업창업계획서와 귀농교육 이수 여부, 농업·농촌 분야 자격 등을 기준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로 선정한다.

김진만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장은 "지난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의 무주군 정착률은 70%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라며 "올해도 운영을 내실 있게 해 무주가 귀농·귀촌 1번지임을 확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한국국토정보공사,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협약

임실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장지사는 지난달 28일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적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적 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도락 및 행정구역간 개별지적 점합 오류필지 등 경계 정비가 필요한 필지를 정밀하게 수정·보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연

실습과 실행면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실군은 행정적 지원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장지사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지적 측량 및 데이터 정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지적도 정비사업은 '25년부터 추진하여 단계별 정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교육 진행

안정적 농산물 공급 기반 마련

진안군은 3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6년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되고, 공공 급식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출하 농가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연중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교육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돼 출하 농가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는 평이 이어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절차 및 출하 규격 안내 △농산물 품질 관리 기준 교육 △부적합

농산물 방지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 기준 설명 △공공급식 참여 방법 및 공급 체계 이해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등이다. 특히 품질·규격·안전성 관리 기준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진안 로컬푸드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진안군 관계자는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로 이어지는 중요한 먹거리 정책"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출하 농가들이 품질과 안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진안 로컬푸드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진안군은 출하 농가와 함께 성장하는 로컬푸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익명의 기부자, 남원 사매면에 쌀 20kg 50포 전달

남원시 사매면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기부자의 조용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사매면행정복지센터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로부터 쌀 20kg 50포(환산액 3,250,000원)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고자 하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에서 이루어졌다.

기부자는 배달업체 직원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조용히 기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된 쌀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식록 사매면장은 "익명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시 사매면 행정복지센터는 기부자의 소중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과 물품 배부를 세심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살피기 위해 1일 1가구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교 한중혁 대위, 헌혈 100회·누적기부 1,000만원

적십자 회원 유공장 명예장 수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지사는 한중혁 대위가 헌혈과 정기회원, 봉사활동을 통해 인도주의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온 공로로 적십자 회원 유공장 명예장을 수여받았다고 3일 밝혔다.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에서 근무 중인 한중혁 대위는 2018년 입대 후 매월 15만원씩 대한적십자사에 정기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산불과 여객기 사고 등 재난 발생 시에도 기부에 참여해 2026년 기준 누적 기부액이 1천만원을 넘어섰다. 대한적십자

사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적십자 회원 유공장 명예장을 수여했다.

헌혈 활동 역시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한 대위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00회의 헌혈을 실천하며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식지원 봉사, 해양사고 예방활동 등 각종 인도주의 봉사에도 적극 참여해 현재까지 누적 봉사시간도 총 571시간에 달한다.

한중혁 대위는 "처음엔 일상에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이어지면 누군가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책임



는 범위에서 나눔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김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명절 나눔 펼쳐

설 명절을 앞둔 3일, 신풍동 곳곳에서 조용하고 따뜻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이웃의 문을 두드리며 설 인사를 전하는 '설맞이 행복꾸러미 배달이요'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46가구를 직접 방문해, 떡국떡과 만두, 조미김, 사골국 등 설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로 구성된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웃을 직접 만나 안부를 살피며 명절의 온기를 전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부 활동이 적은 가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이번 방문은 명절 기간 자칫 느낄 수 있는 고립감을 덜어주는 데에도 기여했다. 일부 가구에서는 "설을 앞두고 직접 찾아와 줘서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현장에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제=은봉기 기자

대전 개인택시 반딧불회, 무주군에 성금 340만원 기탁

"고향 무주 발전과 이웃 행복 바라는 마음 담았다"

대전 개인택시 '반딧불회' 회원 34명이 '고향 사랑 무주 사랑'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3일 김동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5명이 무주군을 방문해 기부금 34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중 대전 개인택시 반딧불회 회장은 "고향 무주의

발전과 이웃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어 흐뭇하다"라며 "항상 무주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고향을 위한 일, 이웃을 위한 일에 항상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딧불회'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총 1,42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무주군에 전달했으며 2016년부터는 해마다 불우이웃돕기와 인제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전북 수박연구회, 고창군에 이웃돕기성금 100만원 기탁

전북 수박연구회와 연구회 소속 명인·장인회(회장 이만수)가 지난 2일 고창군청을 찾아 100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이는 전북공동도모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 수박연구회 명인·장인회 이만수 회장은 "소외계층들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수는 "소중한 나눔의 손길을 이웃에게 잘 전달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윤호농장, 부안군에 운동 용품·의류 기탁

부안군장애인체육회는 윤호농장(대표 정윤호)이 지난 2일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들을 위해 써달라며 배드민턴 용품과 의류(2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전했다.

윤호농장은 백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윤호대표는 논농과 한우를 복합영농하는 농장을 운영하며 2024년부터 꾸준히 장학금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정윤호 대표는 "청년창업농으로

지역에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하고 싶었는데 흥정진코치님과 김효진장님 덕분에 부안반다비체육센터에서 생활체육활동, 선수육성 등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기탁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부안반다비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 이서맛집사랑방, 어르신께 매일 식사대접

완주군 이서면에 소재한 이서맛집사랑방(대표 김경란)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정기적인 식사나눔을 시작했다.

맛집사랑방의 식사대접은 한 달에 한 번, 이서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그 첫 시작으로 지난달 남계리 대농마을 어르신들 20여 명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했다.

이번 나눔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나눔이라는 점에 의미를 더했다.

김경란 대표는 "지역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시고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익산 송학동지사협, 정기후원자 가정 찾아 감사떡 전달

익산시 송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선희·권성남)는 연초를 맞아 3일 '감사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후원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나눔 문화 확산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송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후원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떡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송학동은 매년 정기후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지역 복지 안전망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一事一言〉



전북 평균 급여 16위의 경고...지역경제 구조를 다시 묻다

김관춘
주필

국세청이 발표한 2025년 국세 통계(2024년 귀속)는 지역 경제의 민낯을 숫자로 드러낸다. 좋은 정치시만넷이 통계를 토대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를 분석한 결과는, 전북자치도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다. 단순한 임금 격차를 넘어, 지역 산업 구조와 일자리의 질, 그리고 소득의 '발생지'와 '거주지'가 분리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주소지 기준으로 본 2024년 전국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5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그러나 전북의 평균 급여는 3,946만 원에 그쳤다. 증가율은 2.6%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인 16위에 머물렀다. 이는 전북의 임금 수준이 전국 평균의 86.2%, 서울의 73.5%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문제는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평균은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전북은 상승 폭마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원천징수지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더 뚜렷해진다. 전북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69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84.5% 수준이며, 역시 전국 16위다. 이는 전북 내 사업장의 임금 수준이 전국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같은 전북 안에서 완주군과 익산시의 격차는 상징적이다.

현대차를 비롯한 대형 제조업 생산기지가 위치한 완주군의 원천징수지 기준 평균 급여는 5,027

만 원으로 전국 군 단위 1위 수준인 반면, 익산시는 3,658만 원에 그쳐 완주군보다 연간 1,369만 원 낮다. 기업 유치의 '양'이 아니라 '질'이 지역 소득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주소지 기준에서는 전주시가 4,237만 원으로 가장 높고, 익산시는 3,798만 원으로 전북 내 4위다. 겉으로 보면 중위권이지만, 전국 평균 대비 83.0%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주소지 기준 원천징수지 기준 간의 차이이다. 전북 전체에서 주소지 기준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2만 6,516명인데, 원천징수지 기준은 55만 6,721명으로 약 7만 명의 차이가 난다.

이는 전북에 거주하면서 실제 소득은 타 지역에서 발생시키는 근로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익산 역시 주소지 기준 신고 인원이 원천징수지 기준보다 1만 3,005명 더 많다. 지역 내 일자리 부족이 통계로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구조는 전국 상·하위 자치단체 비교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주소지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와 부산 중구의 1인당 평균 급여 격차는 3배를 넘는다. 익산시와 서초구를 비교하면 약 2.4배 차이가 난다. 원천징수지 기준에서도 대기업과 제조업 기반이 밀집한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결국 고임금 일자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지역 소득을 좌우하고, 그 결과는 인구 이동과 소비 구조로 이어진다.

이제 질문은 분명하다. 전북의 과제는 단순한 일자리 '수'의 확대가 아니라, 평균 임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산업 구조 전환이다. 물류·저부가가치 제조업 위주의 기업 유치 전략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에너지, 바이오, IT, 첨단 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핀셋형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완주·군산 등 고임금 일자리 밀집 지역과의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생활권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균형발전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전북의 임금 구조가 오랜 기간 누적된 산업·고용 구조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해마다 크게 줄지 않고 오히려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정책 대응만으로는 구조적 전환이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단순히 기업 수를 늘리는 방식이나 고용 인원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일정 수준의 고용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지역 전체의 평균 소득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은 청년층과 핵심 인력의 이동 문제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구조는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가로막고, 이는 다시 지역 산업의 고도화를 저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전북에 주소를 두고도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은, 전북이 '사는 곳'일 수는 있어도 '일하는 곳'으로는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지역 내 소비와 투자 역시 외부로 빠져나가 지역경제의 체력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익산을 비롯한 전북 시·군은 거주지로서의 매력은 유지하면서도, 소득이 지역 안에서 발생하고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문화·산업 인프라를 고도화해 기업과 인재가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소득의 역의 발생과 지역 격차는 더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국세통계 분석은 전북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숫자를 넘어선 결단과 전략이다. 전북도가 지향해야 할 전략은 명확하다. 평균 임금 수준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중소기업의 임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이번 국세통계 분석은 단순한 통계 보고서가 아니라, 전북 지역 경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중요한 기준점이다. 숫자가 보여준 현실 앞에서, 이제는 보다 분명한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사설

KB·신한금융의 전북행, 균형발전 새 좌표 세우다

KB금융그룹이 증권·자산운용·손해보험 등 핵심 계열사를 집적한 'KB금융타운'을 전북혁신도시에 조성하기로 했다. KB증권과 KB자산운용 사무소, AI 기반 비대면 상담조직, 손해보험 스마트센터가 들어서며 상주 인력도 250여 명 규모로 확대된다. 이는 단순 지원 조직이 아닌 실질적인 금융 업무 기능을 지역에 안착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신한금융그룹도 전북을 자산운용·자본시장 핵심 허브로 선언하고 종합자산운용사 최초의 전주사무소와 고객상담센터를 신설해 전문 인력을 3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운용·수탁·리스크 관리로 이어지는 자본시장 밸류체인을 전북자치도에서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로써 전북혁신도시에는 공공·금융 기관 30여 곳이 집적되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중심으로 한 금융 생태계가 한층 단단하고 두터워지게 됐다. 서울이 종합금융을, 부산이 해양·파생금융을 담당하는 국가 금융 구도 속에서 전북이 자산운용과 농생명·기후에너지 금융을 맡아 삼각축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 민간 대형 금융그룹의 참여로 현실화 된 것이다. 이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과급 효과도 적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500명 이상 금융 전문 인력 유입으로 지역 소비와 생활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직접·간접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에 즉각적인 활력이 더해질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민간 금융그룹이 연계된 자산운용 밸류체인이 구축돼 법무·회계·IT 등 연관 전문서비스 산업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금융 인재를 기업, 정보가 집적되는 구조가 형성돼 전북이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넘어 민간 주도 금융 거점으로 전환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번 금융 거점 조성이 지역 산업 구조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다. 자산운용과 자본시장 기능이 전북에 자리 잡으면 농생명·재생에너지·탄소감축 등 지역 주력 산업과 금융의 결합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는 단순 금융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금융의 역할로 확장될 여지를 뜻한다.

다시 말해 대형 금융그룹의 거점화로 전북의 대외 신뢰도와 기업 유치 경쟁력이 제고되고 자산운용 및 투자 기능의 실질적 존재로 지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가 다양해져 창업 생태계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기후·에너지 금융과 연계한 투자 상품 개발, 농생명 분야 특화 펀드 조성 등은 전북만의 차별화된 금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때 전북 금융 거점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내실이다. 전북자치도와 지역 사회는 금융 기능이 일회성 이전에 그치지 않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산업 연계를 치밀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양대 금융그룹의 선택이 전북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도록, 행정과 전북도민 모두가 책임 있는 후속 노력을 다해야 할 때다.

문 화 재 열 전

견두산마애여래입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불교조각, 석조, 불상
-지정일 - 2003년 5월 16일
-시대 - 고려시대
-소재지-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 산102-4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윤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국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말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봄 바다 / 김사인

구장집 마누라 방향이 커서 다리아만 했지 다리아만 했지 구장집 마누라는	젓통도 커서 현 런닝구 앞이 빛등만 했지 빛등만 했지 그 낮잠 곁에 나도 따라	채송화처럼 높고 싶었지 아득한 코골이 소리 속으로 사라지고 싶었지 미끄덩 인몰도 좋은 구장집 셋째 아들로 환생해설	랑 서울 가 부잣집 과부하고 배 맞 추고 싶었지
---	---	---	----------------------------------

시인 약력 : 1956년 충북 보은 출생.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학 재학시절 대학신문에 '戀詩'를 위한 이미지 연습, '밤 지내기' 등의 시를 발표한 청년 문사였다. 1982년 '시와 경제'에 동인으로 참가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이후 시인으로, 평론가로 등단하고 민중문학 진영의 이론가로 활동했다. '한국문학의 현대성'에 평론 '지금 이곳에서의 시'를 발표했다. 1987년 첫 시집 '밤에 쓰는 편지'를 펴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전북 TIMES
전북타임스신문

전북의 오늘, 전북타임스와 함께 ..

‘전주 함께 복지 시리즈’ 도시의 온도를 높인다

각자도생의 시대라고 하지만, 전주시는 ‘함께’라는 단어에서 복지의 방향성을 찾았다. 라면 한 봉지에서 출발한 작은 나눔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골목과 마을로 확산되며, 세대 돌봄과 지역경제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함께라면’을 시작으로 함께힘!피자, 함께미소, 함께주방, 함께장터, 함께라서로 확장된 전주 함께 복지 시리즈는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지를 구현해 왔다. 이 ‘함께’의 여정을 따라가며, 시민의 작은 실천이 어떻게 생활 속 복지로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시민 참여로 완성한 생활복지, 전국 모델로 주목

▲ 라면 한 봉지에서 시작된 시민 참여형 복지

라면 한 봉지에서 시작된 작은 나눔은 이제 전주시를 대표하는 시민 참여형 복지 모델로 자리 잡았다. ‘전주 함께 복지 시리즈’는 행정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복지 공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보완하며, 새로운 도시형 복지 생태계를 구축했다.

복지의 주체를 행정에서 시민으로 확장한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으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우수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주시는 혼자 사는 중장년과 은둔형 위기가구,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 제도권 밖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주목했다. 기존 복지 제도만으로는 이들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공간을 도심 곳곳에 조성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전주함께라면’이다. 복지관과 청소년시설 안에 라면 나눔 공간을 마련해,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라면을 채워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부담 없이 그 라면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신청이나 심사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나눔의 문턱을 낮추고 참여와 이용이 시민의 일상이 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함께라면’의 핵심은 순환과 연결이다. 기부된 라면 한 봉지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의 한 끼가 되고, 반복적인 이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생활 실태가 파악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연계된다.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위기를 조기에 발

견하고 행정 서비스로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함께라면’은 2024년 6개 복지관에서 시작해, 2025년 청소년시설 2곳이 추가됐다. 이후 커피와 책을 더한 복합 복지공간 ‘함께라떼’로 발전하면서 현재 함께라면 8개소, 함께라떼 6개소가 운영 중이다.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함께라면’ 누적 이용자는 7만 2천여 명, ‘함께라떼’ 이용자는 3만 5천여 명에 이른다. 두 공간을 통해 이어진 후원은 총 1,022회로 라면과 커피, 즉석밥 등 물품과 성금을 합쳐 약 2억 원 규모다. 이를 통해 211건의 위기가구가 발굴돼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연결됐다.

▲ 세대와 지역을 잇는 ‘함께’의 확장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전주함께라면’의 운영 방식은 이후 ‘전주 함께 시리즈’ 확장의 토대가 됐다.

일상 공간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접근 방식은 세대 돌봄과 지역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며, 복지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단절됐던 도시 공동체를 다시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주 함께 복지 시리즈’의 세 번째 나눔사업인 ‘함께힘!피자’는 세대를 잇는 복지 모델이다. 후원금으로 마련한 재료를 활용해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간식을 아동·청소년 시설에 전달하는 구조로, 어르신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지난해 12월에는 확대 협약을 통해 나눔 대상을 청년 계층으로까지 넓혀, 전주형 사회주택 등 청년거주시설에 입주한 청년들에게 생필품과 영양 간식을 지원하며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함께미(미)소(笑)’는 독거노인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지원하

는 사업이다. 정부 민생소비쿠폰 사용 금액의 10%를 기부로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식이다.

지난 한 해 동안 794건의 후원이 이어지며

약 2억 3천만 원 규모의 성금과 기부 물품이 모였고, 이는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백미와 누룽지, 식료품 등의 형태로 전달됐다.

공유경제의 개념을 복지 영역으로 확장한

‘함께주방’은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조리 공간이다. 시민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노송동 천사마을과 전주푸드 효천점에 이어 최근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 3호점을 추가로 조성하며 운영 거점을 확대했다. 요리와 나눔을 매개로 시민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함께장터’는 상생의 문화를 지역경제 회복으로 연결한 전주형 착한 소비 운동이다. 기업·시민·공공기관·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는 구조로, 골목상권·전통시장·노동자 기(氣) 살리기 3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산단 노동자 아침 식사 지원 사업’은 큰 호응을 얻으며, 13회에 걸쳐 846개 업체, 4,325명의 노동자에게 든든한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전주 함께 복지 시리즈는 책을 매개로 한 새로운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선보인 ‘함께라서(書)’는 시민과 기업, 지역 서점이 참여해 책을 기부하고 나누는 문화복지 모델이다.

기중 도서는 독서 소외계층과 시민에게 전달되며, 읽은 책을 다시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일상 속 나눔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독서 경험과 정서적 위로, 학습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라면에서 책까지, ‘함께’가 만든 생활 속 복지

라면 한 봉지에서 책 한 권까지, ‘전주 함께 복지 시리즈’가 걸어온 길은 복지의 범위와 방식을 새롭게 정립해 왔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 자원을 연결해,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나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전주 함께 복지 시리즈’는 단순한 물질 지원을 넘어 관계를 만들고, 세대를 잇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함께라면’과 ‘함께라떼’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함께힘!피자’와 ‘함께미소’는 세대 돌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고 있다. ‘함께주방’과 ‘함께장터’는 시민 참여와 상생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며, 지역 공동체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함께라서’가 더해지면서 전주의 복지는 생존 지원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문화 향유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행정이 모든 위기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전주 함께 복지 시리즈는 시민과 일상 공간, 민간 자원을 촘촘히 연결해 ‘발견-연결-지원’으로 이어지는 생활 기반 복지 체계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45개 지자체와 기관이 ‘함께라면’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등 전국적 확산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고립 위기가구 발굴과 사례 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한 함께 시리즈를 재설계하고, 종합사회복지관과 행정복지센터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발굴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보다 촘촘한 통합 복지 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함께 시리즈’를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까지 연결하는 통합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누구나 주변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도움을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전주형 복지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